

한역경전 번역의 개선방향

妙注 스님¹⁾
(동국대학교 강사)

목 차

- I. 머리말
- II. 한역경전의 의의 및 번역의 기본 원칙
- III. 한역경전 기존 번역본의 개선 사항
- IV. 맺음말

I. 머리말

수행과 포교를 위해서는 漢譯 경전에 대한 훌륭한 한글 번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실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인식되어 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재정적인 지원과 역량 있는 譯經士 양성 등의 문제가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역경사업은 조계종단의 三大 사업의 하나이면서, 또한 이것은 비단 조계종뿐만 아니라 범종파적인 사항이다. 번역된 경전은 불교의 여러 종파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기 때문이다.

1) 철학박사. 唯識學 전공.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 동국대 등에서 강의. 한역불전의 한글 번역서로서 『해심밀경』, 『성유식론』, 『섭대승론석』, 『해심밀경소』 등이 있음.

종래 우리나라의 역경은 주로 한역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한역경전의 한글번역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梵本을 漢譯했던 경전을 다시 韓譯하므로, 불교 원전에서 본다면 重譯으로서 이중의 수고가 따르고, 더구나 표의문자에서 표음문자로의 번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번역의 원론적인 논의보다도 종래 한역경전 번역에 있어서 개선 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 본문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한역불전의 우리말 번역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역경전의 ‘한글화’ 작업은 조선시대 訓民正音 창제 이후부터이지만, 불전의 ‘우리말’ 번역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에 불교적인 내용을 이두로 표기했으며, 고려의 均如大師는 『十句章圓通記』를 方言으로 적었다. 이런 사실들은 당시 우리 문자가 없어서 남아 있지 않을 뿐 이미 불전의 우리말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역경전의 한글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刊經都監에서 『능엄경언해』 등 여러 경전의 언해본이 제작 간행되었다.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에 龍城(1864~1940)스님은 1921년 三藏譯會를 조직하여 『화엄경』, 『원각경』을 비롯해서 여러 경전을 번역했다. 해방 이후 昔珠스님의 法寶院(1961), 呑虛스님의 海東佛敎譯經院(1960)에서 여러 한역경전들을 번역했으며, 『우리말 팔만대장경』(1963)이 대한불교청년회에서 발행되었다.

동국역경원이 개설됨으로써 한역불전의 한글화 사업이 본격화되었는데, 그 경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962년 4월 조계종이 통합종단으로 출범하면서 도제양성·포교·역경사업을 종단의 3대사업으로 책정했으며, 그 해 11월 조계종의 宗正 직속기관으로 대한불교조계종역경위원회를 두었다. 1963년 9월, 역경위원장 耘虛스님은 역경계획안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김법린 총장과 논의하여 동국대에 東國譯經院을 개설하기로 정식으로 합의했고, 동국대의 학칙기관으로 자리

하게 되었다. 1964년 7월 21일 마침내 동국역경원이 개원식을 갖고 출범하게 되었다. 동국역경원의 고려대장경 한글화 계획이 정부의 고전국역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되어 1966년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마침내 『한글대장경』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1964년 수차례의 회의 끝에 「譯經例規」가 만들어졌다. 운허스님, 法頂스님, 月雲스님을 위시하여 여러 역경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로 마침내 1993년까지 137권이 번역 간행되었고, 1994년에 정부의 국고지원이 재개됨으로써 1998년까지 177권이 간행됨으로써 고려대장경의 한글화인 『한글대장경』이 완비되었다.²⁾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간행으로 역경불사는 양적인 면에서는 성취되었다. 이제는 그 번역본을 바탕으로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쳐 改譯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동국역경원에서는 기존의 번역본에 대한 개역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수차례 譯經의 필요성, 중단 차원의 재정지원, 역경사 양성 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문제보다도 한역경전 번역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부분적으로라도 모색하고 싶다. 이러한 취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譯經史에서 전통적으로 한역경전이 지니는 의의, 한역경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기본 원칙을 거론한 다음에, 기존의 번역에서 이젠 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위와 같은 한역불전의 한글 번역과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간행 경위에 대해서는 月雲스님古稀記念論叢刊行委員會에서 1998년 간행한 『불교학논총』의 ‘제6부 동국역경원의 어제와 오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박경훈, 「譯經 — 동국역경원을 중심으로 — 」, pp. 715~743.

沈三鎭, 「동국역경원 ‘譯經例規’에 대한 小考」, pp. 745~789 참조.

II. 한역경전의 의의 및 번역의 기본 원칙

1. 漢譯經典의 의의

불교경전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특히 교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다.³⁾ 經藏(sūtrānta-piṭaka, 修多羅藏)의 한역본 분량은 1,516경이 현존한다.⁴⁾ 오늘날 학계에서 한역 經藏의 분류는 『大正新脩大藏經』의 十部 분류법이 통용되며, 이에 속하는 경전의 수는 다음과 같다.⁵⁾

- ① 阿含部 (『장아함경』 · 『중아함경』 · 『잡아함경』 · 『증일아함경』 외 147경)
- ② 本緣部 (『육도집경』 · 『불소행찬』 등 168경)
- ③ 般若部 (『대반야바라밀다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42경)
- ④ 法華部 (『묘법연화경』 · 『무량의경』 등 15경)

3) 일반 불자들에게 ‘佛經’과 간혹 혼동되기도 하는 ‘佛典’이란 용어는 佛敎全書의 성격이다. 즉 佛典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계율에 관한 책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후대에 지어진 여러 주석서, 불교에 관한 논술 해명서, 불교 역사서, 고승들의 전기, 어록, 불교를 소재로 한 수필 등 문학작품, 사전이나 目錄 종류 등을 망라한다.

4) 『대정신수대장경』에 10부로 분류되어 수록된 경전은 모두 1,516경이다. 단, 여기서는 『아함경』으로 『장아함경』 등 4종을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말하면 『아함경』에는 총 2085가지의 小經이 수록되어 있다. 즉 『장아함경』에 30경, 『중아함경』에 222경, 『잡아함경』에 1362경, 『증일 아함경』에 471경이 있다.

5) 경전분류법인 敎相判釋에 있어서 예전에는 天台의 五時敎判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근대에는 교리발달사적인 시각, 즉 교리가 오랜 기간을 두고 발달해왔다는 관점에서 경전을 분류한다. 이는 근대 불교학자들의 실증적이고 문헌고증적인 학문방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일본 『大正藏』의 十部 분류법이 가장 합리적인 분류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 ⑤ 華嚴部 (『대방광불화엄경』 · 『불설십지경』 등 33경)
- ⑥ 寶積部 (『대보적경』 · 『승만경』 · 『불설아미타경』 등 64경)
- ⑦ 涅槃部 (『대반열반경』 등 23경)
- ⑧ 大集部 (『대방등대집경』 등 28경)
- ⑨ 經集部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불설미륵하생경』 · 『유마힐소설경』 · 『좌선삼매경』 · 『대승입능가경』 · 『해심밀경』 · 『정법염처경』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등 423경)
- ⑩ 密敎部 … 『대일경』 · 『금강정경』 등 573경

漢譯된 불전의 원본은 ①pāli語 등의 俗語로 된 것 ②고전 梵語로 된 것 ③후기 혼합 범어(hybrid sanskrit)로 된 것 ④서북 인도 ·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된 간다라어로 된 것이 있다. 대체로 『아함경』 · 아비달마논서 · 초기 대승경전은 고전 범어로, 후기 대승경전은 혼합 범어로 되어 있다. 남방불교의 성전은 팔리어로 되어 있다.

불교가 중국 등 여러 나라로 전래되면서 범어 · 팔리어로 된 원전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한역불전의 경우, 직접 범본에서 번역되거나 서역지방의 언어에서 重譯되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번역한 경우도 있지만, 주로 국가 차원에서 翻經院 등을 설치하여 역경사업을 실시했다. 번경원의 역경 작업은 단순히 불전 번역뿐만 아니라 ‘불전 강의’와 ‘후진 양성’ 등의 성격도 지녔다. 번경원에는 譯經三藏 밑에 여러 직제를 두어서 번역 작업을 돕도록 했다. 鳩摩羅什(Kumārajīva, 343~413. 401년에 長安에 들어옴)스님 때부터 국가적인 후원아래 번경원 체제에서 이루어졌으며, 玄奘(600~664. 645년 귀국)스님의 譯場에서 본격적인 번경원 직제가 마련되었다.⁶⁾

6) 玄奘의 譯場에는 譯註, 筆受者, 證梵語者, 正字者, 祥證大義者, 證文者, 監閱者 등의 직제가 있었다. 宋代에 志磐의 저술인 『佛祖統記』 제43권에 번경원의 직제로서 譯主, 證義, 證文, 書寫, 筆受, 綴文, 證梵本, 刊定, 潤文의 9종이 나온다. 번경원에는 이외에 度語, 梵唄, 校勘, 監護 등이 있었다. 宋代에 이처럼 매우 정비된 官設 역경설비를 두었으나, 이미 중요 경전들이 唐代까지 오면서 거의 번역되어 譯出할

참으로 중국의 역경가들은 번역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을 기했다. 이들의 노력은 범어 원전을 漢譯할 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인 道安(314~385)스님의 五失本과 三不易⁷⁾, 그리고 玄奘스님의 五種不翻說⁸⁾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譯經史에서 크게 현장 이전을 舊譯, 이후를 新譯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구마라집 이전을 古譯, 이후를 舊譯, 현장 이후를 신역이라 하기도 한다. 舊譯은 대체로 達意的인 번역이고, 新譯은 逐語的인 번역 경향이였다.

한역경전의 우수성은 높이 평가된다. 우선 종류와 분량면에서 1,516 부가 현존하여 매우 풍부하고⁹⁾, 약 2세기부터 11세기까지 역경

원본이 적어진 관계 등으로 11세기 후반에 번경원의 역경사업이 중단되었다.

7) 梁의 僧祐(445~518)가 찬술한 『出三藏記集』에 道安의 『摩訶鉢羅若婆羅蜜多經抄』가 수록되어있는데, 그 序에 의하면 도안은 五失本과 三不易을 제창했다. (『대정장』 55, p. 52中下) 참고로 설명하면 五失本이란 번역으로 인하여 원래 의미를 손상시키는 다섯 가지를 말한다. 즉 범어와 중국어의 語順의 차이로 인해서거나, 梵本의 반복된 문장이나 설명적인 많은 글귀들이 번역 과정에서 삭제되는 것 등으로 인해서이다. 三不易이란 번역할 때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되는 원형의 한계를 설정한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부처님께서 때에 맞도록 설한 교설을 마음대로 삭제해서 번역할 당시의 분위기에 맞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범부가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어려우므로 옛날의 미묘한 가르침을 번역할 당시의 취향에 맞도록 기교를 부려서는 안된다. ③결집할 때 아라한들까지도 신중을 기했는데 번역할 당시의 얕은 생각대로 취사선택해서는 안된다.

8) 原音대로 音譯하고 뜻으로는 번역하지 않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말한다.

- ①陀羅尼와 같이 비밀한 뜻이 있는 말은 意譯하지 않는다. (秘密故)
- ②薄伽梵과 같이 한 낱말에 몇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말은 意역하지 않는다. (多含故)
- ③閻浮樹와 같이 중국에 없는 말은 意역하지 않는다. (此方無故)
- ④阿耨多羅三藐三菩提와 같이 이전의 역자가 번역해서 일반에 의미가 두루 알려져 있는 말은 意역하지 않는다. (順古故)
- ⑤般若를 지혜라고 번역할 경우와 같이 그 심오한 뜻이 반감되는 말은 意역하지 않는다. (尊重故)

작업이 이루어져서 각 시대의 경전을 보존하고 있으며, 翻經院 등에서 정비된 제도 아래 번역되어 질적으로 우수하고, 구마라집이나 현장 등 뛰어난 譯經家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역경전이 갖는 불교사학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 譯出된 불전을 바탕으로 교학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여러 종파가 성립되었고, 교단사적으로 중국불교에 와서 비로소 一乘佛敎가 확립되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 불교의 전래 · 信行 · 교학 발전을 가져왔으며, 나아가 유교 등과의 접목을 통해 동양사상의 발전에 기여했다.

2. 한역경전 번역에 있어 미비점 보완을 위한 기본 원칙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경전의 한글 번역은 한역본을 사용해왔다. 범어 등 원전에서의 한글번역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범본은 散逸되어 현존본이 적고, pāli本이나 西藏本 경전을 번역해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한자문화권으로서 漢譯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한역경전을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켜져야 한다.

(1) 梵本, pāli本, 西藏本의 한글 번역문 참조

한역경전을 번역할 때 梵本, pāli本, 西藏本 등으로부터의 번역문을 참조하면, 한역본의 達意的인 번역과 한문이라는 文章語에서 비롯된 모호한 부분들이 훨씬 명료해진다. 근래 몇 분 학자들에 의해 이들 원전으로부터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금강경』은 널

9) 물론 이에는 異譯, 抄譯, 部分譯 등도 있어서 실제 부수는 그보다 적다.

리 유통되는 경전으로서, 근래 뜻있는 분들에 의해 범본과 서장본 번역이 간행되어 이 경전을 한결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범본은 거의 散逸되어 현존본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삼장을 통하여 般若經類, 華嚴經類 등 약 40부 정도 현존할 뿐이다.¹⁰⁾

팔리어 경전은 5nikāya로 5,273경이라는 풍부한 분량이 있다.¹¹⁾ 팔리어 경전 번역본을 읽고 있노라면 석존 原音의 체취를 더욱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초기경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승경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西藏本으로부터의 한글 번역은 重譯이 된다. 그러나 경전의 분량이 풍부하고, 한역에 없는 것이 서장대장경에 있으며, 서장어의 성질이 범어를 바탕으로 창제되어 범어로의 複譯이 가능한 점 등 西藏大藏經이 지니는 중요성 때문에¹²⁾ 오늘날 세계적으로 서장대장경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데 서장본에도 문제점, 즉 번역의 문체나 문장 등에서 원본과 차이가 난다거나¹³⁾, 판본의 年代性 등을 감안해야 한다.

(2) 逐語적인 異譯本 대조

10) 이들 경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山田龍城, 『梵語佛典 諸文獻』 (京都: 平樂寺書店, 1959), pp. 32~109 참조.

11) pāli語 삼장 중에 경장으로는 5nikāya로서 『長部(Dīgha-nikāya)』에 3품 33경, 『中部(Majjhima-nikāya)』에 15품 152경, 『相應部(Saṅyutta-nikāya)』에 5품 2875경, 『增支部(Aṅguttara-nikāya)』에 170품 2198경, 『小部(Khuddaka-nikāya)』에 15경이 있다.

12) 李載昌, 『불교경전개설』, (동국대 불전간행위원회, 1982), p. 48.

13) 예를 들면 필자는 원측의 『해심밀경소』를 번역하면서 지엽적이긴 하지만 문제점을 느꼈다. 이 책은 원래 총 10권 중에서 제8권의 앞부분과 제10권이 산실된 채로 전해졌었다. 이 책의 서장본이 현존하여 일본의 이네바 쇼오쥬(稻葉正就)씨가 그 결손 부분을 서장본으로부터 한문으로 還譯한 바 있다. 그런데 1980년에 중국 佛學院의 觀空 스님이 서장본으로부터 還譯했는데, 그 번역문을 보면 圓測 현존본의 문장·문체와 차이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 번역이 정확하려면 범본 등 원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한문 · 범어 · 팔리어 · 서장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하기란 어렵다. 또한 위의 항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존 원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경전 번역은 언어실력뿐만 아니라 해당 원전에 대한 교학적인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역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차선책으로 異譯本 특히 逐語的인 역본을 대조하면서 번역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를 들면 일반 불자들에게 널리 유통되는 경전에는 구마라집스님의 역본이 많다. 그 분의 번역이 達意的인 번역으로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루한 느낌이 없으며, 독송 등으로 경전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준 점은 높이 평가된다. 참으로 구마라집의 번역문은 간결하고 유려하여 독송 경전으로 으뜸이다. 하지만 경전을 심도있게 공부하려 할 때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구마라집 역본의 『금강경』에 매료되면서도 간혹 느끼듯이, 이럴 때는 逐字譯을 했던 玄奘이나 眞諦 역본 등을 대조하면서 번역하면 뜻이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면 구마라집 역본의 「如理實見分」에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여기서 若見諸相非相을 일반적으로 “만약 여러 형상의 형상 아닌 것으로 보면”으로 번역하는데, 현장 역본과 진제 역본을 참조하면 “만약 여러 형상과 형상 아님을 보면”으로 번역해야 옳다. 현장 역본에는 “乃至諸相具足 皆是虛妄 乃至非相具足皆是虛妄 如是以相非相應觀如來”으로 되어 있고, 진제 역본에는 “凡所有相皆是虛妄 無所有相則是眞實 有相無相應見如來”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부처님은 32상을 갖춘 色身이 아니라 형상을 초월한 法身이며, 그러면서도 수행자는 형상(32상의 色身)과 형상 아닌(法身) 중도법의 이치로서 부처님을 보아야 최상의 깨달음이 성취된다는 취지이다.

또한 「無得無說分」에 “일체의 현인과 성인은 모두 무위법으로써 차별이 있게 된다[一切賢聖 皆以無爲法 而有差別]”라는 내용이 나오

는데, 일반 불자는 명확한 이해가 쉽지 않다. 현장 역본에는 “모든 현인·성인의 보특가라는 모두 무위가 현현된 바이기 때문[以諸賢聖補特伽羅皆是無爲之所顯故]”으로 되어 있다. 진제 역본에는 “일체의 성인은 모두 무위진여로써 현현된 바이기 때문[一切聖人皆以無爲眞如所顯現故]”으로 되어 있다. 이해하기가 한결 낫지 않은가! “모든 성인은 무위 진여가 나타난 바이다.” 즉, 무위 진여에 바탕을 두고 여기로부터 갖가지 설법이 행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무위 진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얻되 얻음이 없으며, 설하되 설함이 없는 것이다. 석존의 최상의 깨달음 성취와 45년간의 수많은 설법은 모두 무위법 즉 진여에 바탕을 두고 나타난 바로서, 차별된 갖가지 법이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 표현 그 자체에 매이지 말고 그 진정한 이치를 체득하라는 취지이다.

구마라집의 역본으로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경전 중에 『금강경』 외에 『유마경』, 『유교경』, 『아미타경』의 경우는 逐字譯인 玄奘 역본이 현존하므로 대조하면 유익하다. 『유교경』은 전통적으로 禪門에서 佛祖三經 중의 하나로 중요시되는데, 범본과 서장본이 전해지지 않는다. 『유마경』은 서장본만 현존하며, 『아미타경』은 범본과 서장본이 모두 현존한다. 참고로 이 세 경전의 번역 명칭과 대장경 수록 권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유교경	유마경	아미타경
구마라집 역본	佛垂般涅槃教誡經 1권 (大 12-1110 Ⓚ 13-1180)	維摩詰所說經 3권 (大 14-537 Ⓚ 9-977)	佛說阿彌陀經 1권 (大 12-346 Ⓚ 11-185)
현장 역본	佛臨涅槃記法住經 1권 (大 12-1112 Ⓚ 13-1292)	說無垢稱經 6권 (大 14-557 Ⓚ 9-1035)	稱讚淨土佛攝受經 1권 (大 12-348 Ⓚ 11-18)

(3) 口訣本과 훈민정음 언해본 참조

한역경전의 띄어 읽기와 懸吐 작업에서 전래의 口訣本¹⁴⁾과 훈민정음 언해본¹⁵⁾을 참조하면 매우 유익하다. 특히 불전 口訣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불교학계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띄어 읽기와 현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번역내용이 달라지는데, 구결본에는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 고려시대의 기라성같은 고승들의 經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시대 언해본 간행은 전래의 구결본을 참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해본의 띄어 읽기와 현토를 참조해야 한다.

삼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순수한 우리말로 경전을 강의했을 것이고, 신라에서는 불전의 보급을 위해 한역본에 이두와 구결 방식이 행해졌다. 물론 사찰에서 漢譯 불전을 강의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러한 구결본을 많이 참조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간경도감 등에서 여러 불경이 언해될 때, 한역본에 적당히 분과하여 띄어 읽기와 현토를 하고, 이어서 훈민정음으로 번역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때 그 띄어 읽기와 현토 작업은 단순히 당시 고승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전래되던 구결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려대장경』이 오류가 거의 없는, 질적으로 우수한 대장경으로

14) 口訣이란 우리나라 사람이 漢文을 읽을 때 문맥을 분명히 이해하고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문 중간 중간에 끼워 넣는 우리말 요소를 말한다. 원문을 그대로 둔 채 文意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어의 虛辭 체계를 동원하여 한문에 보충한 것이다. 우리말 구결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5) 刊經都監에서는 1462년부터 연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9종의 언해본을 간행했다. 즉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 『선종영가집언해』, 『금강경언해』, 『반야심경언해』, 『아미타경언해』, 『원각경언해』, 『수심결언해』, 『法語諺解』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安秉禧, 「刊經都監의 諺解本에 대한 研究」, 『월운스님고회기념 불교학논총』(동국역경원, 1998), pp. 603~627.

평가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이전에 중국 등에서 간행된 여러 판본들을 대조하고 교정하는 작업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불전을 보는 안목은 당시 전란 중의 고승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는 삼국시대부터의 구결본의 견해가 많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현재 동국대 도서관에 이들 자료가 있으며, 또한 전통사찰에 구결본 불전이 많이 소장되어 있을 것이다. 그 중요성이 불교학계에 별로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말이다. 1975년에 『舊譯 仁王經』 발견을 계기로¹⁶⁾ 국문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구결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口訣學會에서 매달 輪讀會를 여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Ⅲ. 한역경전 기존 번역본의 개선 사항

한역경전의 기존 번역본에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막상 경전을 번역하려면 많은 노고가 따르게 되므로, 기존의 노력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처럼 세미나를 개최하는 취지도 결국은 기존 번역본의 功過를 논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좀더 개선되었으면 한다.

1. 인도의 종교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번역해야 한다.

한역 용어를 번역할 때 한자의 뜻 그대로 직역하면 원래 의미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용어의 원래 의미, 인도의 종교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번역해야 한다. 예를 들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16) 충남 서산군 운산면 문수사 금동여래좌상의 복장유물에서 발견되었다. 이 『舊譯 仁王經』(상권)은 고려시대의 구결 자료이고, 한문을 국어로 읽는 釋讀法을 채택한 점 등 구결 연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재기, 「舊譯 『인왕경』의 구결에 대하여」(국립박물관 미술자료 제19집, 1975) 참조.

(1) 稽首

‘稽首’는 경전에 자주 나오는 용어이다. 종래 이것을 ‘머리를 조아리다’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다’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稽에 ‘조아리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稽首를 한자의 뜻 그대로 ‘머리를 조아리다’로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계수¹⁷⁾란 단순히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경례하는 것으로서 인도에서 최상의 경례방법이다.

우리말로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면, 이마를 바닥에 대는 큰 절뿐만 아니라 그냥 서서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래 의미에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조아리다’라는 표현은 語感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따라서 계수를 번역할 때는 “머리를 조아리다”로 하기 보다는 “큰절을 올리다” 또는 “큰절을 올리며 공경하다” “공경히 큰절을 올리다” 등으로 하는 것이 원래 의미에도 정확하고 어감도 좋다.

(2) 偏袒右肩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 『금강경』의 「선현기청분」에 나오는 ‘偏袒右肩’의 경우이다. 한글본에 “옷웃을(또는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벗어 메고”로 번역한 경우가 많다. 옥편에서 袒이 우리말로 ‘옷 벗어 멜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직역한 것이다. 그러나 袒의 한자 뜻은 ‘偏脫衣’ 즉 옷 전체를 벗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옷을 벗는 것이다.¹⁸⁾ 따라서 편단우견은 옷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벗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실제로 스님들이 대가사를 수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또한 佛像에 通肩과 편단우견의 양식이 있음을 본다.

17) 稽首는 범어 vandana의 번역어로서 稽首禮, 頂禮, 頭面禮足, 接足作禮, 五體投地라고도 한다.

18) 玄奘 역본의 『금강경』에는 ‘偏袒一肩’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경전에 나오는 ‘편단우견’은 “옷웃을 오른쪽 어깨에 벗어 메고”로 번역하고, 이에 별다른 의문 없이 그대로 답습한다. 이것은 경전을 대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올바른 이해보다는 독송에 비중을 두며, 聖典이 지니는 강한 보수성에서 기인된다. 그러나 이제 불자들의 이런 무비판적인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편단우견을 “옷웃을 벗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¹⁹⁾ “옷웃을(또는 가사를) 한편으로 걸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²⁰⁾ “오른쪽 어깨를 벗어”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2. 문맥상의 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용어의 한자 뜻 그대로의 직역이 아니라, 문장의 앞뒤 문맥 위에서 용어를 해석하고 번역해야 한다. 人非人을 예로 들기로 한다. ‘人非人’은 대승경전의 서분에서 범회 대중으로 종종 열거되는데, 종래 이 용어의 번역은 잘못된 경우가 많다. 범회 대중에서 나오는 “..... 마후라가 인비인(人非人)”을 “..... 마후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또는 “.....마후라가, 인(人) · 비인(非人)”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 人非人을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문맥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법화경』의 「서품」에 “爾時 會中 比丘比丘尼優婆塞 優婆夷 天龍夜叉乾闥婆阿修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 及諸小王 轉輪聖王 是諸大衆得未曾有 歡喜合掌一心觀佛”²¹⁾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문맥상의 논리적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의 기존 한글역 全文을 인용해보면, “이 때 모인 대중 가운데 있던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와 천 · 용 · 야차 · 건달바 · 아수라 · 가루라 · 긴

19) 우룡, 『금강반야바라밀경』 (보림각, 1987), p. 15.

20) 김용옥, 『금강경 강해』 (통나무, 1999), p. 144.

21) 『묘법연화경』 제1권 (『대정장』 9, p. 2中)

나라 · 마후라가 · 인(人) · 비인(非人)²²⁾과 모든 소왕(小王)과 전륜성왕 등, 이 모든 대중들은 미증유(未曾有)를 얻어 환희하여 합장하고 열심히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로 번역되어 있다.

문맥상 이 부분에서 어째서 ‘사람과 사람 아닌 이’가 나온단 말인가? 이 용어의 앞뒤에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와 “모든 소왕과 전륜성왕”이란 구절이 있어서 이미 ‘모인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人非人을 ‘사람과 사람 아닌 이’로 해석하면 문장의 흐름에서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이 경우의 人非人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실제로는 사람 아닌 존재’, 즉 사람도 축생도 귀신도 아닌 존재를 말한다. 원래 인비인에는 ①긴나라의 별명 ②천룡팔부중과 그 종속자의 총칭 ③사람과 사람 아닌 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대승경전의 범회 대중 가운데 천 · 용 등 八部衆에 이어져 나오는 인비인의 경우는 두 번째인 ‘팔부중과 그 종속자의 총칭’을 가리킨다.

어째서 그들을 人非人이라 부르는가 하면, 원래 팔부신중은 인간이 아니지만 만일 범회석상에서 본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범회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고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루라는 金翅鳥라고도 하는데, 독수리와 같은 사나운 새로서 용을 잡아먹는다는 조류의 왕이다. 마후라가는 大蟒神이라 해서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뱀이다. 만일 이런 존재들이 호법신중으로서 본래 모습으로 범회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반 사람들과 얼굴이 마주친다고 상상해보라. 겁이 나서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는가? 그래서 본래 인간은 아니지만, 범회대중을 위해서 짐짓 인간의 모습을 취하므로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人非人]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냥 “인비인(人非人)”으로 하든지 “사람인 듯 하나 사람 아닌 것(존재)”²³⁾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22) 또는 ‘사람과 사람 아닌 이’ 등으로 된 경우가 많다.

3. 불교교리에 부합되게 번역되어야 한다.

한역경전을 번역할 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용어를 일반 사회적인 용어로 번역한다. 그런데 때로는 불교교리에 맞지 않게 무리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중국불교 초기에 나타났던 일종의 格義佛敎 현상과 같다 하겠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렇더라도 法相 용어, 불교교리에서 중요한 술어는 불교교리에 부합되게 번역해야 한다. 그리고서 註나 해설을 통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편이 옳다.

예를 들면 『반야심경』을 위시해서 경전에 나오는 五蘊 중의 識의 문제이다. 종래 범요집이나 해설서 등의 번역문에서 이것을 ‘意識’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불교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불교에서 ‘意識’이라 하면 六識 중의 하나인 ‘제6 意識’을 가리킨다. 경전에 나오는 ‘의식’은 결코 6식을 통괄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五蘊 중의 識은 제6 의식뿐만 아니라 六識 모두를 지칭한다. 또한 대승의 五蘊說에서 보면 이 識에는 아뢰야식 등 심층식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오온에서의 식을 일반인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의식’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또한 요즘 일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의식’ 이외에 ‘무의식’ ‘잠재의식’의 영역이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은 보편적인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온에서의 ‘식’은 그냥 法相 용어 그대로 ‘識’으로 하든지, 아니면 ‘식별’ ‘식별작용’ 등으로 번역해야 한다.

4. 관용음은 무조건 답습되어야 하는가?

23) 無心普光 국역,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경 — 반주삼매경—』 (여래장, 1998), p. 10.

한역본을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한역음, 속음으로 오랫동안 관용되어 이미 굳어진 어휘들은 관용음대로 적는다. 예를 들면 十方을 ‘십방’이 아닌 ‘시방’으로 읽는다거나, 般若를 ‘반약’이 아닌 ‘반야’로 하고, 菩提를 ‘보제’가 아닌 ‘보리’로 하고, 道場을 ‘도장’이 아닌 ‘도량’으로 읽는다. 音便現象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관용음이라 해서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가? 음편현상에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법이므로 잘못된 관용음은 이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개정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鳩摩羅什을 종전에는 ‘구마라습’으로 읽었지만 요즘은 ‘구마라집’으로 시정되었고, 현재 이 표기가 통용된다.

관용음이라 해도 시정되었으면 하는 용어의 예를 들면 ‘아승지’ ‘아녹다라삼막삼보리’ 등이다.

(1) 아승지

阿僧祇는 범어 asamkhyā의 음역어로서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를 가리킨다. 원래는 ‘아승기’인데 오랫동안 ‘아승지’로 발음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아승기’로 시정되어야 한다.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언해본에도 ‘아승기(阿僧祇)’로 되어 있다.²⁴⁾ 또한 ‘아승기’라는 발음이 무엇이 그리 어렵단 말인가?

‘아승지’의 경우는 음편현상의 경우라기보다는, 경전 유통과정의 誤寫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불교사전 등에는 한자가 阿僧祇로 되어 있고 ‘아승지’로 관용적으로 읽는다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되는 경전에는 阿僧祇로 적고 ‘아승지’로 읽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한자 자체가 祇에서 祇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다.

24) 『金剛般若波羅蜜經 — 六祖解 正音譯 —』 (한국불교문화연구원, 1974), p. 332.

‘아승지’라는 발음의 한자는 阿僧祇였고, ‘아승지’로 말하다 보니까 ‘阿僧祇’까지 ‘아승지’로 읽게 된 것은 아닐까? 阿僧祇를 언제부터인가 ‘아승지’로 발음하게 되었으므로 阿僧祇로 적은 것인지,²⁵⁾ 아니면 유통과정에서 祇가 祇로 誤寫되어 阿僧祇로 되었고, 그리하여 ‘아승지’로 말하게 된 것인지는 그 앞뒤가 분명하지는 않다. 어쨌든 ‘아승기’라는 발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는 음편현상에 해당되지 않고, 誤寫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음대로 ‘아승기’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아녹다라삼막삼보리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의 한자는 阿耨多羅三藐三菩提이다. 널리 알다시피 이것은 범어 anuttara-samyak-sambodhi의 음역어이며, 無上正等正覺 · 無上正遍知 등으로 意譯된다.²⁶⁾ 최상이며 바르고 두루한(평등한, 보편적인) 올바른 깨달음’이란 뜻이다. 正智와 遍智로 眞과 俗을 깨달아서 치우치지도 않고 삳되지도 않은 깨달음이다. 그런데 사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올바른 발음은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이다. 원어가 ‘anuttara’이고 한자로도 ‘김멜 누(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관용적으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로 읽는다.

이미 이 표기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도 되겠지만, 이제는

25)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는 ‘ㄱ’을 ‘ㄷ’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길’을 ‘질’이라 한다든지 ‘기름’을 ‘지름’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다. 혹시 ‘아승기’를 ‘아승지’로 발음하게 된 것도 이런데서 연유한 것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된다. 어쨌든 표준어가 아니므로 이 발음은 시정되어야 한다.

26) 圓測은 『佛說般若波羅蜜多心經贊』에서 無上正等正覺의 의미를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법도 이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無上’이라 하고, 理(본체, 실상, 진여)와 事(현상)를 두루 아는 까닭에 正等이라 하며, 망념을 떠나 참됨을 비추기 때문에 ‘정각’이라 한다[無法可過 故言無 理事遍知 故云正等 離妄照眞 後云正覺 卽是無上正等正覺]”라고 설명한다. (『대정장』 33, p. 550上)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불교에서 중요한 용어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라는 표기는 음편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자음인 ‘아누다라삼막삼보리’보다 오히려 발음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로 읽게 되었을까? 그 유래를 문헌상으로 살펴보면, 조선시대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언해본에 ‘아녹다라삼막삼보테’로 되어 있다. 왜 ‘누’라 하지 않고 ‘녹’이라 했을까? 아마도 이 용어가 불교 수행의 핵심인 중요한 용어이고 음역어이므로 梵音대로 표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이전에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독송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힘주어 발음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발음하게 되었고, 그래서 ‘녹’이라 표기한 것일까? 어쨌든 오랫동안 그렇게 발음되어 왔기 때문에 이 표기로 굳어졌다.

하지만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현재의 범음 표기법에 맞지 않으며, 이런 발음은 음편현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발음이 더 어렵게 되었지만 단지 관용적으로 답습되어 왔을 뿐이다.

‘아녹다라삼막삼보리’는 당시의 梵音 표기였고, 오늘날의 범음 표기법에 의하면 ‘아눗따라삼약상보디’ 또는 ‘아눗타라삼약상보디’이다.

비록 관용적으로 그렇게 발음되어 왔더라도 잘못된 표기는, 불교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용어인 경우는 시정되어야 한다. 마치 觀의 범어인 vipaśyanā를 종래 ‘비파사나’로 표기했지만 요즘은 ‘위빠사나’ ‘위빠싸나’라는 개정음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와 같다. 이 용어는 그냥 한자음대로 ‘아누다라삼막삼보리’라고 하든지 오늘날의 梵音 표기법으로 읽는 것이 좋다.

(3) 無罣碍

덧붙여 말한다면, 『반야심경』 등에서 無罣碍를 ‘무가애’로 읽는 것도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특히 『반야심경』은 대부분의 범회에서

독송하기 때문에, 발음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권위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無罣碍의 원래 발음은 ‘무괘애’이다. 罣가 ‘거리낄 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불전에서 ‘무가애’로 표기되고 있다. 단지 발음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한자음을 우리 식대로 표기해도 무방한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발음한다.”라고 설명하면 무조건 통한단 말인가? 그것이 능사가 아니다. 음편현상에도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無罣碍’는 술어, 전문용어가 아니다. ‘시방’ ‘반야’ ‘보리’ 등과는 다른 경우이다. 문장 속에서 단지 ‘거리낌이 없다’는 동사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관례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무조건 답습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종래 ‘아녹다라삼막삼보리’ 같은 발음하기 어려운 용어도 사용해왔다. 결국은 습관의 문제이다. ‘무괘애’의 경우도 처음에는 발음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별로 어렵지 않게 발음할 수 있을 것이다.

5. 만연체 문장의 번역 방법

불전을 읽다보면 蔓衍體의 문장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때 그냥 순서대로 번역하면 독자가 자칫 의미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나친 만연체의 문장일 경우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령 있게 문장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간결하고 기억하기 좋으며 독송하기도 좋다. 번역된 경전의 문장은 명쾌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예를 들면 『해심밀경』의 「서품」에서 “如是我聞 一時 薄伽梵 住最勝光曜七寶莊嚴 放大光明 普照一切無邊世界..... 無量功德衆所莊嚴 大寶花王衆 所建立大宮殿中”²⁷⁾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경전 서분의 六成就 중에 처(處) 성취를 말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세존께서 마가다국 왕사성 근교의 기사굴산에 계시면서 삼마지 가운데 18월만의 타

27) 『解深密經』 제1권 「序品」 (『大定藏』 16, p. 688中).

수용정토를 현현하신 장면이다. 이 정토의 열여덟 가지 원만상은 세존께서 과거 보살로서 오랜 세월동안 이타행을 닦은 선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청정 無垢識에 의해 변현된 양상이다.

만일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한때 박가범께서 매우 찬란하게 빛나는 칠보장엄이 대광명을 내어 널리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비추고, 수많은 방위공간을 연이어 미묘하게 장식했으며....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고 뛰어난 보배 연꽃으로 세워진 궁전에 머무시었다.”가 되어 독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자칫하면 “박가범께서 (직접) 칠보장엄의 대광명을 내고, 방위공간을 미묘하게 장식하며” 등으로 오해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박가범께서 다음과 같은 궁전에 머무시었다. 그곳은 매우 찬란하게 빛나는 칠보장엄이 대광명을 내어 널리 한량없는 세계를 모두 비추고.... 한량없는 공덕으로 장엄하고 뛰어난 보배 연꽃으로 세워진 곳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한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런 번역 방법은 論書에서 더욱 필요하다.

6. 부처님께서 대보살을 상대할 때의 종결어

경어법의 文體에 있어서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등 대보살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의 호칭과 종결어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특히 북방불교권에서는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래 대승경전의 번역문에서 “~이니라”, “~하도록 하라” 등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동국역경원의 「역경예규」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왕 · 공 · 후 · 장자를 대할 때는 “대왕이여”, “왕이여”, “장자여”, “그대는” 등을 쓰고, 종결어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등을 쓰며, 노인 · 여인 등의 경우에는 “그대는”, “하십시오”, “하는가” 정도의 평상어를 쓰도록

되어 있다.

1964년도 「예규」에 의하면, 제자나 아랫사람 또는 외도에게는 “너, 너희, 너희들”로 하고, 보살 · 王公 · 귀족이나 바라문의 師匠 또는 집단군중에 대해서는 “그대, 그대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제자 개인에 대해서는 이름 아래 “~야, ~여”를 붙이고, 집단인 경우는 호칭 아래 “~들이여”를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등 대보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분들은 대승불교권 불자들의 신행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신앙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분들의 住處 도량이 있고, 예부터 영험 있는 기도처들이 전해온다. 관세음보살도 불자들에게 막강한 신앙의 대상이지만, 문수보살은 전통적으로 “문수는 삼세에 모두 과위의 佛이다[文殊三世果位]”²⁸⁾ “문수는 석가여래의 9代祖이다[文殊爲九代之祖]”²⁹⁾로 인식될 정도이다. 비록 경전에는 이 분들이 會衆으로 나와서 석존의 제자인 듯이 묘사되고 문답이 이루어지지만, 이 분들은 석가모니불의 직접 제자가 아니다. 이미 아득한 옛적에 다른 부처님의 교화로 果位에 올랐으며, 석존의 교화사업을 돕기 위해 보살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28) 문수보살이 비록 석가여래의 교화를 돕기 위해 잠시 보살의 因位를 나타냈으나, 三世에 모두 果上의 여래가 되었다는 설이다. 과거에는 龍種上佛, 大身佛, 神仙佛이라 하였고, 현재에는 歡喜藏摩尼寶積佛이라 하고, 미래에는 普現佛이 된다고 한다. <『불교학대사전』(홍법원, 1988), p. 428에서 인용>

29) 『법화경』 「서품」에 의하면, 과거세에 일월등명불이 출가하기 전에 여덟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출가하여 깨달았다는 말을 듣고 모두 따라서 출가했다. 이때 妙光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에게 법화경을 설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여덟 아들이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으며, 묘광은 이들을 교화하여 차례로 성불하게 했다. 최후에 성불한 이가 然燈佛이며, 묘광보살은 문수보살이었다. 따라서 문수는 8代의 위에 있고, 연등불은 석가여래의 스승이므로 문수의 석가여래의 9代祖가 된다는 설이다. (위의 『불교학대사전』에서 인용).

따라서 석존께서 이 분들을 부르실 때 “관세음보살이여”, “지장보살이여” 등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종결어에서 “~하는 것이니라”, “~하도록 하라” 등으로 번역하여 일반 성문 제자들과 동격으로 대하는 관례는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차제에 사리불, 마하가섭 등 십대제자 大聲聞에게 말씀하실 때 호칭과 종결어의 문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私席도 아니고 많은 대중이 모인 법회에서, 많은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보는 자리인데, 위대하고 월만한 인격의 석존께서 교단의 상수제자에게 과연 “~야” “~하라” 등으로 말씀하셨을까?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한역경전 번역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불교경전은 인생과 세계의 근본 진리를 사실 그대로 훌륭하게 꿰뚫어서 밝혀놓은 聖典이고,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은 최상의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신 분이며, 거기에 담긴 내용은 진리에 대한 탁월한 통찰이고, 또한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득력 있게 잘 설해져 있다.

한역경전은 분량과 質 등 여러 면에서 그 우수성이 높이 평가되며, 중국불교계에서 역출된 경전 연구를 바탕으로 일승불교의 확립을 가져오는 등 불교사학적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 한역경전을 번역함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본 · 빨리본 · 서장본의 번역문을 참조하고, 逐語的인 異譯本을 대조하며, 口訣本과 훈민정음 언해본을 참조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기존 번역본의 개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각각 예를 들면서 강조했다. 즉 인도의 종교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번역해야 하고, 문맥상의 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불교교리에 부합되게 번역해야 하고, 관용음이라 해도 무조건 답습하지 말고 시정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만연체 문장의 번역은 요령 있고 과감하게 다듬을 필

요가 있다. 북방불교권이므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문수보살 등 대보살을 상대로 말씀하실 때의 종결어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동국역경원의 「역경예규」를 『한글대장경』 번역에 참여하는 역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개인적인 번역가, 외부 출판사에 熟知시켜서 경전 번역문을 통일시켜 나가야 한다.

한역 경전에서 띄어 읽기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때로는 불교의 중요한 교리가 오해되기도 한다. 또한 懸吐의 토씨들이 너무 고어투인 관계로 현실언어 감각에 뒤떨어져서 독자들로 하여금 경전을 지루하고 어려운 책으로 느끼도록 만든다. 특히 범보시용 경전에 이런 경향이 많다. 이것은 종단적인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주요 경전에 대한 속고와 改譯이 있어야 한다. 『천수경』·『반야심경』 등 법회의 주요 독송경전들이 ‘통일범요집’에 나오는 번역문장이 모두 다르다. 오죽하면 “통일범요집들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불교의식에 사용되거나 불자의 신행일과에서 독송되는 경전들은 誦經을 염두에 두고 리듬 있고 장중한 문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종교적인 경건성을 지니면서도 간결하고 유연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역경가는 번역된 경전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의식해야 한다. 경전을 번역하는 목적이 불교학자 양성보다도 주로 일반 불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경전은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면 대체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한 경전 번역은 비단 오늘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므로, 청소년이 읽어도 무리가 없는 문장이 되어야 한다.

누누이 강조되는 바이지만, 훌륭한 역경을 위해서는 역시 재정 지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나마 국고 보조 때문에 역경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현실을 통감해야 한다. 중앙승가대학에 미래의 훌륭한 역경사 양성을 목적으로 불전국역연구원과 역경학과가 개설되었지만 배출된 역경사들의 불투명한 앞날, 종단의 효율적이지 못한 인적자원 활용,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큰 효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그 자체의 힘’과, 탁월한 진리의 말씀에 감동 받은 불자들의 사명감과 노력으로 역경불사는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

키워드(Keyword)

축자역(逐字譯), 구결본(口訣本), 관용음 답습문제(慣用音 踏襲問題), 만연체 번역법(蔓衍體 翻譯法), 종결어 번역법(終結語 翻譯法), Literal Translation, Gugyeol Script Version, The Issue of Transliterating Formulaic Sounds, Long and Redundant Style Translation, Ranslation of Sentence-ending Words